

# 문장쓰기

민병준 (Byungjoon Min)

S1-1-203

[bmin@cbnu.ac.kr](mailto:bmin@cbnu.ac.kr)

# 의

- 진격의 거인
- 나의 살던 고향은
- 기체 안의 분자
- 태양에서부터 각 행성들까지의 거리는

# 들

- 고체들

->

- 세가지 서로 다른 계들을

->

- 많은 사람들이

->

# 수 있다 / 것 같다 / 생각한다

- 이라고 할 수 있다

->

-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 인 것 같다

->

- 나는 ~라고 생각한다.

->

(참조)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해야 마땅하다 ->

-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 없지 않다 ->

# 대한 / 관한

- 가뭄에 대한 대책

->

- 규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방법

->

# 수동태

- 이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다루어진다.  
->
- 보여진다 ->
- 요구된다 ->
- 되어진다 ->
- 생각되어진다 ->
- 하게 된다 ->

# 주술 관계

- 단문쓰기 / 주어와 술어를 가까이 두기
- 오늘 현안 문제들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있게 손잡고 걸어 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오늘도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김정은 인사말 중)
-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어떤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발언 중)
- 국내외 증권사들이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없을 것으로 국내외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등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 수식어 위치

- 수식어와 피수식어 가까이 두기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

# 접속사

- 접속사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 기량이 있는 상목수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못 하나 박지 않고 집 한 채를 짓는다. 억지로 못질을 하여 나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귀를 맞추어 균형과 조화로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는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서툰 글일수록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의 못으로 글을 이어간다. 그런 글을 읽다 보면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게 된다. 잘 다듬어진 글의 이미지와 리듬은 인위적으로 접속사를 붙이지 않아도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고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글의 앞머리만이 아니다. 글을 맺는 종지형도 마찬가지이다. 서툰 글일수록 '것이다'로 끝맺는 것이 많다. 한 글에 '것이다'를 몇 번 썼는가,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를 얼마나 썼는가 하는 기계적인 통계만으로도 악문과 명문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어령, 한국의 명문 중)